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1학기 주말 강좌 운영

전북교육청, 4개 대학서... 군산간호대 증강현실 인체탐험 등 총 36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 1학기 주말 강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도 교원 수급, 활동 공간 한계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대학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주말 강좌에는 군산간호대, 원광보건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등 4개 대학이 참여해 36개 강좌에 720명의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로는 △군산간호대 증강현실 인체탐험과 간호체험 △원광보건대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검진 체험 등

12강좌 △전주기전대 주식투자를 통한 경제이해 등 9강좌 △전주비전대 3차원CAD를 활용한 5축로봇설계 및 제작 등 14강좌다.

수업은 5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4~29일 오후 10시까지 공동교육과정 플랫폼(<https://becredit.kr>)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고 1·2학년생 우선 선발하며, 신청 학생이 적으면 3학년도 포함한다. 신청 결과는 학교로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형으로, 학생의 참여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강자와 이수시간이 기재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여름방학에도 창의적체험활동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2학기에는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개설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점을 인정받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학점 인정 학교 밖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소멸 등의 소비자 광고심리학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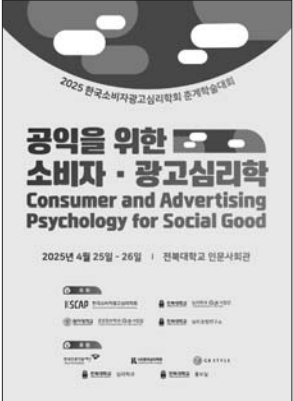
25~26일 전북대서 '공익을 위한 소비자·광고 심리학' 주제 학술대회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 환경오염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소비자 광고심리학적으로 분석한 학술대회가 오는 25~26일 이틀간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린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강정식, 심리학과 교수)가 '공익을 위한 소비자·광고 심리학'을 주제로 마련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통해서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의 '전북의 실태와 Only One 성장 전략', 백기태 교수(환경공학과)의 '감추어진 환경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 웰빙'과 '소비자와 소셜미디어',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 그리고 '소비자와 AI'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가 진행됐다.

또한 전북대와 동아대 BK21+ 사업단의 특별세션을 통해 국내 노인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



영향', '강아지상·고양이상의 인식 평가와 광고 효과', 'AI 생성형 광고에 대한 이중지각' 등 시대 흐름이나 우리의 실생활에 부합하는 발제들이 눈길을 끈다.

강정식 회장은 “소비자·광고심리학은 금언 광고 효과, 현열·기부 촉진, 그린워싱 효과, 지역 브랜딩 연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학문 분야”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안 해결이라는 소비자·광고심리학 분야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가 열렸다.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출범

전북교육청, 1차 회의 개최... 청렴도 1등급이 목표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신뢰 회복 등 위한 실천 전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성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까지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부교육감, 본청 국장 및 부서장, 직속기관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천 제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청렴으로 신뢰받는 더 투명한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11개 분야·5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 청렴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가 핵심 전략이다.

먼저 청렴 리더십 강화, MZ세대 청렴서포터즈 운영, 청렴 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형 청렴 시스템을 신규로 추진한다.

학교운동부·방과후학교·현장체험

학습·계약·공사 등 부패 취약 분야에는 책임관리제를 도입해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며, K-에듀파인 시스템 활성화, 자기진단제도 등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 방안을 본격화한다.

청렴 소식지, 캠페인,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우수 시책은 타 기관과 공유하고, 청렴 실천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청렴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복합재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영문교재 출간

전북대 한운봉 석좌명예교수
세계적 출판사 Wiley-VCH 초청

전북대학교 한운봉 석좌명예교수(화학공학부)가 세계적인 출판사인 Wiley-VCH의 초청으로 ‘복합재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영문교재를 출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화학공학부에 재직하는 동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광학적,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기능성 복합재료들을 만들고, 이를 최초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활성층·전하수송층 및 계면층에 적용함으로써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들에 보고한 바 있다.

공저자로 참여한 제자(왕유성 교수, 타미나 마호무디 교수)와 함께 복합재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세계적인 연구팀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대학교 4학년, 대학원 및 태양전지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필요한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효율과 안정성이 우수한 복합재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구조와 원리, 다양한 종류의 복합재료 제조와 태양전지 응용, 효율과 안정성 향상 방법, 납(Pb)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소재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이슈 및 전망, 특성 평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유아 발달 평가 전면 재검토하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아 발달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아 발달평가 사업은 ‘조기 발견’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발달평가의 도구로 사용되는 K-SIED(육아정책연구소 개발)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다. 발달 지연 아동은 조기 발견하겠다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또래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아닌 모든 유아를 일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

이어, 평가 문항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하며 알맞은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항목은 하나의 문장에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된 복합 문항이다. ‘한 발로 150cm 이상 뛰다’라는 문항은 맥락이 불명확하고, ‘식물이나 동물의 성장 과정을 인다’

라는 항목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개념을 요구하는 등 유아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업무 가중치다. 전북교육청은 평가 도구를 개발한 기관조차 학기 초가 아닌 중후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 단 8일간 평가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5세 기준 57개 문항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유아 한 명당 최소 일주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다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발달평가는 또 하나의 과제로 전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와 관련한 학부모의 민원 제기 가능성이다. 교사가 작성한 평가 내용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학대나 차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발달평가가 강행된다면, 유아교육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교사와 학부모 간 불신은 깊어질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의 전면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특수학급 순회교사 배치 결정 환영”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수학급 순회교사 배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특수교사가 부재할 경우, 발달장애 대체 인력이 없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 머물 수밖에 없어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일반교사들도 수업과 학생 자리에 추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반복됐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병가, 연수, 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대신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결국 필요한 휴식조차 미루거나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이는 교사의 건강과 근무 여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이번 순회교사 배치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수업 결강 시 대체 인력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특수학급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이번 제도가 일부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북 도내 모든 특수학급으로 확대돼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고교 수학교사
문항제작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고교 수학교사 문항제작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수학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학생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사들의 문항제작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문항제작 시 유의점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시작으로 교사들이 직접 문항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 교사들은 과목별로 팀을 구성해 단원에 적합한 문항을 제작했으며, 제작 과정에서 문항의 난이도 조정, 출제 의도 명확화, 오답유형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항의 질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자기조절력 향상으로 사회관계기술 개선

전북교육청, 사회정서학습 기반 찾아가는 인성교육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사회정서학습(SSEL) 기반 찾아가는 인성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월부터 11월까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의사결정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공동체 참여 등 사회정서학습 기반 6차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정서학습은 사회 및 정서적인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완성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인 성장과 인간관계 개선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뒀다.

올해 운영 규모는 50개교(급), 1,200여 명으로 인성교육 전문강사가 희망학교(급)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조절(정서적 역량)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사회적 역량)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확장(정신건강 역량)해 개인 또는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외국어 역량 강화... 전주대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역 사회의 외국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 영어회화 프로그램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4주 과정, 여름방학 중에는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의 영어 실력과 관심사를 고려한 수준별 영어회화 강의뿐만 아니라, 특별 영어회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장은성 기자